

부처로 살라

| 용타스님 |

지금 이 순간 이미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믿고 그대로 '살 때' 그는 이미 부처임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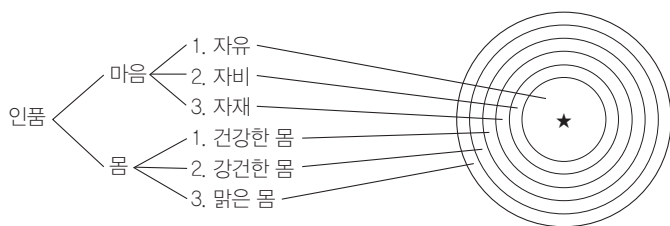
078. 인품人品과 돈망頓忘

인품이란 사람의 모양새이다. 인품과 뜻이 같을 수도 있고 다소 다를 수도 있는 개념으로 인격人格이란 말도 있다. 인품이니 혹은 인격이니 하는 말은 뜻에 있어서 다소의 차별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 인품이든 인격이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안팎의 모양새이다. 이 글에서는 인품이라는 말로 통일하기로 한다. 모양새는 같고 닦으면서 보다 좋은 모양새로 변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인품(인격)의 모양새가 아주 좋을 때 ‘지고至高한 인품人品’이라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 어떤 인품이라야 하는가에 대한 단순명쾌한 답이 있다. 스스로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품, 자기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품이면 된다. 그러한 지고한 인품을 논함에 있어서 돈망頓忘이 크게 고려되어야 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고인품至高人品의 영변零番 조건이 돈망頓忘이기 때문이다.

인품은 사람의 모양새라 했다. 사람의 모양새라면 마음과 몸이다. 즉 마음의 모양새와 몸의 모양새가 합해져 사람의 모양새가 되고 사람의 인품이 된다. 인품에 대한 지론은 가히 만萬 가지로 다양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극히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면에서 논해 본다. 인품과 돈망에서 방점傍點은 돈망에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인품을 말하면서 돈망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글은 인품론이 목적은 아니지만 조금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 가장 기초적인 인품론을 말한다면 몸 건강하고 마음 평화로운 것이리라. 우선 겉모습은 몸이다. 몸은 우선 건강健康해야 하고 강건强健해야 하며 몸에 흐르는 기운이 맑아야 한다. 그러한 몸을 위해서 식생활 바

로하고 적당한 운동과 심장세균深長細均의 호흡을 고려하는 정도이면 될 것이다. 나아가 마음 차원의 인품이라면 평화라 했다. 그러나 평화라는 추상적인 개념 하나로 마음의 인품을 드러내기로는 너무 애매하다.



인품, 혹은 지고한 인품이라 할 때 어떤 마음이라야 할까? 어떤 마음이라야 좋은 마음, 훌륭한 마음, 지고한 마음일까? 어떤 사람이 있어 그 마음에 갖가지 탐욕과 분노가 덕지덕지 차있다고 가정한다면 좋은 인품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마음이거나, 이웃의 행복을 해치는 마음이라면 좋은 인품의 마음일 수 없을 것이다. 인품 판단의 좋은 기준치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무조건無條件으로 고통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리論理 이전의 공리적公理的 사실이다. 그 이유理由를 더 물을 수 없는 것을 공리公理라 한다. “왜 이고離苦하러 하는가?” 곧 “왜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는가?”라는 질문은 걸맞지 않는 물음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상, 즐거움을 지향하는 현상은 그 자체로 그냥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치통으로 치과에 가는 사람에게 “이가 아프다고 해서 왜 치과에 가야하느냐?”고 물을 수 없다.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실 앞에서는 ‘어떻게’는 있을 수 있으나 ‘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고득락은 그러한 공리적 사실이다.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괴로워질 수도 있고 끝끝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 고락의 지평 위에서 인간은 그지없이 이고득락離苦得樂을 지향한다. 이 이고득락에 거점을 두고 모든 역사, 모든 문화문명이 존재한다. 이 모든 인간 행위의 마지막 종착지를 구원이라, 혹은 해탈이라 또 혹은 깨달음이라 하면서 역사 속의 무수 다양한 꿈틀임은 그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 여기에 지고한 인품,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답이 있다. 지고한 인품者人品者란 그 마음이 바로 이고득락의 정점頂點에 이른 자이다. 인품은 대단히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그 복합성을 제치고 드러낼 수 있는 핵심은 이고득락의 정점, 곧 자유自由이다. 곧 자유를 확보하지 못한 인격을 지고한 인품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여기 자유함’은 지고한 마음,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지고한 인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핵심의 답이다. 나아가 모든 인생, 모든 문화문명, 내지 모든 역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곳이 있다면 그 ‘곳’이 바로 지금여기 자유함이다.

자유함이란 다른 말로 자유요, 해탈이요, 니르바나요, 열림이며, 태허요, 구원이며, 무심이며, 돈망이다. 마음을 가진 자가 마음이 자유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보다 지고한 인품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한다면 인품의 한가운데가 부실하여 좋은 인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마음 한복판이 자유롭지 못한 자의 인품은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요 팔앙금 없는 찌뽕이다. 곧 인품을 논함에 있어 돈망은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인 것이다.

누가 자유를 원하지 않겠는가? 누구나 원한다. 생명을 가진 자라면 사람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이다. 이는 행복의 본질이요, 해탈의 본질이며, 거듭 이르지만, 모든 인생,

모든 문화문명, 모든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다. 좋은 인품자人品者는 멋 있는 자일 터,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찌 멋쟁이라 할 수 있으랴!

그토록 귀중한 ‘자유自由’가 하나의 과果라면 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인因은 무엇일까? 동사섭이 말하는 핵심적 답은 바로 돈망삼관頓忘三觀이다. 물론 이 화두話頭 아래 답으로 메아리 될 것들은 문화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께서도 이 화두를 던져놓고 스스로 깊게 사유하신 다음 답을 얻어내셨다. 연기緣起이다. 연기의 상대어는 실체實體이다.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존재를 실체시 하면서 집착하는 것이다.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착의 대상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바로 연기緣起의 관점으로 존재를 바라본다. 집착할 실체가 사라져 버린다. 집착할 대상이 사라져버리니 걸릴 것이 없다. 자유다.

인생을 행복론이라 하든 인품론이라 하든 공동체론이라 하든 그 모든 것의 센터에 드는 덕목은 자유自由다. 곧 지금여기 자유함이다. 곧 돈망頓忘이다.

079. 지금 바로 부처하라

명색이 수행승으로 살아왔다. 한 세월을 [그냥 있는다.]로 살아왔고, 세상을 향한 궁극의 한 마디도 [그냥 있으라!]였다. 세상 나이 70이 넘어서고 있었다. 문득 상상想像 속에서 내 스스로에게 한 질문을 던졌다. “용타스님, 당신은 한 생을 수행승으로 살았다. 당신의 나이 70을 넘어서고 있는 이즈음 전 인류를 향하여 한 마디 말씀을 남긴다면 무슨 말씀을 남기겠는가?”였다. 이 글을 접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떠한가? 궁극의 좌우명座右銘으로 삼고 있는 한 마디는 무엇인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계맺음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고려한다면 모든 존재는 평등한
가치와 의미를 지닐 터, 전체 중 어디를 끊어서 부정不淨하다 할 것인가?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내렸다. [지금 바로 부처하라!]이
다. 요즈음 법문을 하는 자리가 되면 [지금 바로 부처하라!]를 약방의
감초처럼 설하고 있다. 자, 어떠한가? 지금 바로 부처로 살라는 주문
을 받는 당신은 그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겠는가?

지금바로 부처하라!

‘부처가 아닌데 어찌 부처 놀음을 한단 말인가?’하고 물어질 것이다.

이대로 부처이니 부처 역할을 함은 당연하다.

‘이대로 부처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하고 물어지는가?

부처 아님 없음, 즉심즉불即心即佛, 여즉시불汝即是佛 등 불조의 가르
침이 그러하니 믿으면 되고, 나아가 깨달으면 된다. 이대로 부처 선언
을 해도 될 만한 가르침의 전거는 무수하다. 불교 역사 2600년에 곳
곳에는 즉불即佛의 가르침들이 묻어있다. 새삼 전거를 고려하지 않더
라도 어느 정도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마음 깊숙이 수궁
된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해도 구름 저쪽에 온전한 태양이 있
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이라, 열심히 닦다보
면 비로소 부처가 된다는 시각始覺사상도 있지만 닦든 말든 마음 깊은
곳에 오염되지 않은 불성佛性이 있다고 하는 본각本覺 사상이 당연하게
와 닿는다. 나아가 번뇌즉보리煩惱即菩提 사상에 이르면 아예 태양을 가
리는 구름이 그대로 태양과 똑같은 진리이며, 청정한 마음을 가리는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이 청정한 마음 자체와 격격을 함께하는 당당한
진리라는 것이 수궁되게 되면 진정 진리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

는 의식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야기 되고 있는 우주론을 거점으로 이야기 한다면 137억 년 전 우주는 유有라, 혹은 무無라 할 수 없는, 굳이 표현하면 무한소無限小의 something이었다. 그것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니 빅뱅Big Bang이다. 빅뱅 직후 1초를 골백만 배로 쪼갠 아주 아주 짧은 시간, 곧 빅뱅으로부터 10^{-43} 초가 지난 짧은 시간을 플랑크 시대Planck epoch라 이르는데, 이때의 우주 크기는 가히 제로Zero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10^{-33} cm였다는 것이다. 빅뱅 직전이나 직후의 우주를 굳이 묘사한다면 하나의 순수純粹 자체였고 신성神聖한 무엇이었다. 인격적人格的으로 묘사한다면 바로 신神이요 불佛이었다. 그 신神이, 그 불佛이 137.72억년 동안 팽창에 팽창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거대한(?) 우주에 이르렀다고 볼 때, 이 우주가 어떤 성질, 어떤 모양새를 이루고 있든 신神이라 혹은 불佛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그 외에 어떤 반론이 필요할까 하게 된다. 석가모니께서 대각大覺 직후에 말씀하신 “천하가 온통 부처 아님이 없다”하신 그 한 마디가 참으로 깊고 깊게 수궁될 뿐이다.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계맺음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고려한다면 모든 존재는 평등한 가치價值와 의미意味를 지닐 터, 전체 중 어디를 끊어서 부정不淨하다 할 것인가? 연기의 이치를 조금만 사유思惟해 들어간다면 천하가 온통 부처 아님이 없음을 이해할 것이다. 파리, 모기, 먼지가 부처인 마당에 사람이 어찌 부처가 아니겠는가!

다시 원점에서부터 사유해보자.

‘부처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을 만하겠다.

부처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가족들에게 화를 내었는데 화내는 나를 어찌 부처라 할 수 있겠는가?’

가족들에게 화를 낸 부처인 것이다.

‘욕심을 내고 화를 낸 자를 부처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욕심을 내고 화를 낸 부처일 뿐이다.

욕심이 올라온다면 ‘부처가 욕심을 내는구나!’ 해보라. 욕심이 사그라질 것이다.

화가 치밀어 올라오면 ‘부처가 화를 내는구나!’ 해보라. 화가 사라질 것이다.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라는 말씀이 그런 뜻인가?

바로 그렇다. 번뇌의 대표인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을 사유해보자. 탐貪이든 진瞋이든 치癡이든 그 자체는 빅뱅 당시의 신성한 에너지일 뿐이다. 에너지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탐과 같은 에너지가 사람에게 해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탐 에너지를 죄악시하여 번뇌라 할 뿐이다. 사람의 독선獨善이 개입된 상황일 뿐이다. 탐 에너지이든 진 에너지이든 치 에너지이든 사람이 주관적인 독선만 빼고 본다면, 번뇌라 이르던 모든 것들은 선악善惡, 미추美醜, 진위眞僞를 초월한 초가치超價値의 무엇Something일 뿐이다. 어떤 식으로도 규정될 수 없어, 이를 수궁하는 마음은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니 보리菩提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본다면 삶의 현장 어디에서건 신성神聖이 아니라는, 불성佛性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수행을 해서 언젠가 미래에 부처가 되는 법이라고 여기는 불교관佛敎觀을 가진 이에게는 지금 바로 부처한다고 하면 납득이 안 될 것이다. 불교는 성불成佛(미래 언젠가 부처가 됨)로부터 즉불卽佛(이대로 바로 부

처임)까지를 다 아우르는 종교이다. 즉불(卽佛)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성불(成佛)이라도 좋다. 미래에 언젠가 부처될 수 있는 존재라면 지금 바로 부처라 해버리자 하고 즉불(卽佛)을 받아들여도 좋다. 믿음이나 이해로 지금 이대로 부처임이 수궁된다면 바로 즉불(卽佛)을 받아들임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니 또한 좋다.

경상도 도인(道人)이셨던 백봉(白峰) 김기추 거사님의 도량에서는 “부처가 부처로 부처한다.” “허공(虛空)이 허공으로 허공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부시키셨다는 소문을 들은 일이 있다. 천지가 부처뿐이니 부처가 부처로 부처한다 함은 진정 적실(實)한 말씀이다.


오늘날 무비스님께서는 인물(人佛) 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천하에 부처 아님이 없다면 우선 사람부처부터 찾자고 외치고 계신다. 참으로 적실한 말씀이다.

도법스님께서는 부처를 향하여 갈 것인가, 지금 바로 부처를 할 것인가를 물으면서 즉불 운동을 하고 계신다. 역시 적실한 지침이다.

월호스님께서도 이대로 이미 부처이니 바로 지금 부처를 실천하자는 뜻으로 “행불(行佛)하자!”를 외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이 역시 적실한 슬로건이다.

여기 18금(金)이 있다. 금(金)인가, 금(金)이 아닌가? 금이 아니라 해도 맞다. 순금인 24금에서 아직 6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이라 해도 맞다. 18/24%나 금이기 때문이다. 선택은 자유다. 오직 어떤 선언이 자신의 행복에 더 좋으냐가 판단 기준이다. 물론 특수 상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를 이루어간다는 성불(成佛)도 맞다. 아직은 묘각(妙覺)(오만수만(悟滿修滿))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부처라는 즉불(卽佛)도 맞다. 수만(修滿)(닦음의 완성)은 아직 아니지만 오만(悟滿)(깨달음의 완성)에는 흠이 없기 때문이다. 성불(成佛)과 즉불(卽佛). 즉

불에 경도되어 성불을 잇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불에 경도되어 즉불에 눈뜨지 못하는 것은 진정 안타깝다.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성불成佛을 운위云謂하더라도 지금 바로 즉불卽佛 아이덴티티로 임재하면서 부처로서 생각하고, 부처로서 말하며, 부처로서 행동하기를 권장하는 것이 이 글이다. 성불成佛도 지금 바로 부처인 그 부처로서 성불해가면 될 뿐이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회주, 성륜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마음 알기 · 다루기 · 나누기》, 《10분 해탈》 등이 있다.

(재) 행복 마을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저자 용파 | 출판사 대원사 | 정가 12000원

용파 스님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마음 닦는 일에 대한 불교 관점의 입문서이자 지침서다. 불교원간지 『대중불교』 등에 실려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행복과 행복의 조건, 생활 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의로의 산책, 명상 잡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0분 해탈 - 용파 스님의 생활수행 이야기

저자 용파 | 출판사 대원사 | 정가 12000원

생활도 수행이다!

용파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 『10분 해탈』,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은 아나타, 전불교관 대명으로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을 끌어들이며 『동사집(同事集)』이라는 집단수행프로그램을 만든 저자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대원사, 1997년)에 이은 두 번째 수행 지침서다.

이 책은 불교 원간지 『불교』에 3년간 연재해온 〈생활수행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매일 1편씩 10년간 읽으면서 해탈을 이두어 궁극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동사집 수련프로그램 안내

동사집(同事集)이란, 불교의 사섭법(四攝法: 布施攝·愛語攝·利行攝·同事攝) 중의 한 개념이다. 사섭법이란 보살이 중생을 향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베풀고(보시섭), 경우에 따라서는 자애어린 말로 더불고(애어섭), 또는 이로운 일로 도와주고(이행섭), 나이가 그들과 최로매락을 함께하는(동사섭) 삶의 태도를 말한다. 본 동사집수련회에서는, 동사섭의 개념을 사섭법 중의 동사섭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애어, 이행을 다 아우르며, 세상에 존재하는 유정 무정의 개체가 낱날이 우주의 주인공이되 낱날이 서로 평등하게 어울려져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만 존립할 수 있으니 우주 전체가 한 생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일체(一體) 사상을 뜻매김하여 쓰고 있다.

동사집 수련프로그램은 용파스님이 개발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이다. 칼 로저스의 엔카운터를 씨앗으로 하여 1980년부터 수련하여 왔다. 현재는 〈살의 5대 원리-정체(正體)·대원(大願)·수심(修心)·화합(和合)·작선(作善)의 원리〉를 학습 주제로 하여, 의식의 전개 과정을 일상의 삶 속에서 지인(至人)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이론과 실습의 체계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과정(5박6일), 중급과정(3박4일), 고급과정(3박4일)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평소에는 홀수 달, 셋째 주 월요일에 개설되어 있다.

홈페이지 : <http://www.dongsasub.org>

연락처 055-962-1070 / 이메일 office@dongsasub.org